

3월 1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 본문 말씀: 시편 42편 1~5절(3월 1일 본문)
- 포인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1. 찬양

(경배와 찬양) 목마른 사슴

2. 기도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의지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3. 말씀

시편 42:1~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말성경>

1 오 하나님여, 사슴이 목이 말라 혈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2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뵈 수 있겠습니까? 3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4 지난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5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 ≡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전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향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며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난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뵈고 감격했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기자는 그날을 생각하며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자신에게 명령해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를 일으키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 ≡ 4. 나눔

1)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어떤 다짐을 했나요?(5절)

### ■ 저학년

시편 지은이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하나요?(5절)

### ■ 유아·유치

시편 지은이는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나요?(5절)

### □ 질문 가이드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다짐을 통해 삶의 온전한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라며 비웃을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이 시편 기자의 삶에 나타나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 나는 힘들 때 무엇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저학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신나고 힘이 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 ■ 유아·유치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신이 나나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삶이 괴롭고 답답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요. 그래서 가족, 친구 등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 몰두하다 보면, 나의 문제와 답답함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사람이 주는 도움에는 분명 유익함이 있지만, 나의 문제와 괴로움과 답답함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며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 ≡ 5. 감사

나를 사랑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 보세요.

#### ≡ 6. 기도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